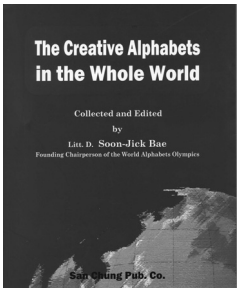
제1회 세계문자올림픽대회(The 1st World Alphabet Olympic)
- 한글이 세계 최상의 문자로 금메달을 받다 -

인문대학 언어학과 이 현 복

2009년 10월 5~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563주년 한글날을 기념하여 제1회 세계문자올림픽대회(The 1st World Alphabet Olympic)가 열렸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문자올림픽대회가 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글이 최고 문자로 평가되어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2위 은메달은 이태리의 로마자가, 그리고 3위 동메달은 희랍 글자에 돌아갔다. 이렇게 한글은 동서양의 모든 문자를 제치고 1위에 등극한 것이다.

세계문자올림픽대회는 글로벌 신학대학원 배순직 박사의 주도로 개최되었고 한글학회가 후원하는 국제 행사였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모금으로 대회를 치루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끝까지 포기하거나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대회를 치루어 대회 조직위 관계자에게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어문 관련 학술단체가 아닌 종교 단체가 이러한 세계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일인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배순직 선생은 지난 24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포교와 신학 강의를 하며 여러 나라 문자의 현황을 살피는 과정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새삼 깨닫고 이러한 세계문자대회를 계획하셨다고 한다.



이번 대회에는 고유 문자를 가진 17개 국가의 대표가 참가하여 자국의 문자에 관한 발표를 하였고, 저명한 언어학자 9명으로 구성된 국제 심판단이 각국의 논문 발표를 평가하여 1~3위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7개국의 문자는 에집트. 아랍, 태국, 몽고, 중국, 일본, 아르메니아, 라오스, 희랍, 헤브라이, 인도 데바나그리, 인도 타밀, 싱할라, 미얀마, 캄보디아, 이태리 문자, 그리고 한국의 한글이었다. 이태리의 로마자는, 비록 창조된 고유의 문자는 아니라고 하나, 전 세계 로마자의 원조라는 의미에서 포함된 것이다. 각국 대표의 논문은 '전세계의 창조적인 문자(The Creative Alphabets in the Whole World)'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대회 당일에 선을 보였다.

그리고 국제 심판에는 미국(John O'Grady), 영국(J. Wells), 카나다(J. Esling), 독일(A. Huwe), 프랑스(M. Prost), 호주(J. Ingram), 러시아(A. Trofimova), 그리고 한국의 김기섭, 정내원 교수 등, 모두 9명의 언어학자로 구성되었다. 심사기준은 김기섭 교수가 대회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전체 국제 심사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수정 검토한 끝에 최종 확정하였는데, 심사 기준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글자 창제의 시기, 목적, 방법 등,
2) 글자 모양의 특성,
3) 글자의 소리 표현 능력,
4) 글자의 결합 가능성,
5) 글자의 학습 난이도,
6) 글자의 수 및 소리와 글자의 대응 관계,
7) 손 전화, 컴퓨터 등에서의 글자 입력 등, 활용의 용이성,
8) 글자의 응용 및 추가적인 발전 가능성,
9) 글자 없는 언어의 표기 능력,
10) 발표자의 발표 능력 및 설득력 등

으로 항목을 나누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토록 하였다.

10월 5일 오전 9시 개회식에서는 후원단체인 한글학회 회장의 환영 인사(필자가 대독)가 있었고, 유명준 조직위원장의 인사말과 배순직 대회장의 기조 강연으로 개회식을 치고 곧 이어 영어로 논문 발표가 시작함과 동시에 심사도 시작되었다. 1시간의 발표 시간에 맞추어 각국 대표는 최선을 다하여 자국의 글자에 관한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어떤 발표자는 심사위원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였는지, 자국의 글자와 관련된 노래를 들려주기도 하였다.

상 장

1 등 성명 : 한 글

위 발표자는 제 1 차 세계문자 올림픽대회에 입상하였기에 이 증서와 부상을 드립니다.

2009. 10. 7

세계문자올림픽대회
대 회 장 배 순 직
조직위원장 유 명 준

한국의 발표자는 필자가 맡았다. 셋째 날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필자는 〈한국의 글자 '한글' -만국의 가시 음성-〉 (The Korean Alphabet HanGeul -Universal Visible Speech-)라는 제목으로 한글 창제의 원리와 목적, 상형의 이론, 기본 글자와 파생 글자의 유연한 상관관계, 자유로운 글자 결합에 의한 다양한 음절의 생성 능력, 글자 모양의 단순하고도 미려한 기하학적인 구성, 학습의 용이성, 정보통신 시대에 걸맞는 활용 능력, 미래의 발전 및 응용 가능성, 거의 600년을 앞서서 15세기 훈민정음에 내재된 20세기 언어학 이론과 개념의 발견 및 활용 사례, 무문자 민족에게 한글의 도입 및 응용 가능성 등을 심도 있고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특히 무문자 민족을 위한 문자개발과 음성학과 언어학의 연구를 위하여 필자가 고안한 '국제한글음성문자 (International Korean Phonetic Alphabet)'의 활용을 예시하였다.

국제한글음성문자의 활용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어 : ㅎㅏㄴㄱㅜㄱㅇㅣ ㅏㄹㅇㅁㅏㅇㅡㄴ ㅅㅏㅁㅊㅓㄴㄹㅣ "한국의 아름다운 삼천리"
2. 영 어: ㅂㅣㅇㅡㅌㅓㅣㅡㄹ ㅁㅡㄹㅣㅇㅣ ㅣㅡㅂㅡㄴㅣㅇ "Beautiful Friday evening".
3. 중국어 : ㅌㅏㅇㅅㅣㅔㅡㅅㅣㅓㅇ ㄴㅣㅇㅎㅏㅇㅁㅏ "王 先生, 你好吗"
4. 일본어 : ㄷㅗㅇㅁㅏㅇ ㅏㄹㅣㄱㅏㅌㅗ ㄱㅗㅈㅏㅣㅁㅏㅅㅜ "Domo arigato gozaimasu
5. 프랑스어: ㅂㅗㅇㅈㅜㄹ ㅁㅏㅊㅔㄹㅣ "Bon jour, ma cheri"

그 동안 한글은 나라 안팎의 학자들에게 훌륭하고 과학적이며 배워 쓰기 편한 글자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세계문자대회에서는 한 자리에 모인 국제 심판단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평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 발표한 결과라는 점에서 한글에 대한 평가가 국제적인 공신력을 얻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글이 대회에 참가한 다른 문자를 제치고 우승을 한 것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가 그만큼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한글이 받은 금메달은 바로 세종대왕께 돌아감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